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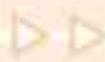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늘푸른농장> 안원희 대표

차근차근 터득한 축산의 깊이, 양돈 전문가로 금산을 대표하다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노령산맥의 지맥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시원한 곳, 충남 금산. 이곳에서 양돈 사업을 위해 여러 축산의 길을 걸어온 한 남자를 만났다. 어릴 적부터 동물 키우기를 좋아한 서울 아이는 오래된 축산 백과사전을 끼고 자라, 어느덧 금산을 대표하는 양돈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가 걸어온 노고의 과정을 들으며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07:00 1년 365일, 언제나 즐거운 아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꿔온 농장이기에, 1년 365일 언제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안원희(57) 대표. 그는 오전 7시면 <늘푸른농장>을 산책하며 돼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사업 목적보다는 그저 동물이 좋아 시작했다는 안 대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동물에게 끌렸던 서울 아이는 닭을 기르면서 축산 관련 서적을 읽고 농장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이어 춘천농고 축산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안 대표는 고교 졸업 후 한우목장에서 목장 관련 일을 배웠고, 축산 인공수정 자격증을 취득했다. 점차 경험을 쌓은 그는 돼지농장과 양계장, 부화장은 물론 다양한 농장의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동물약품기업에 입사하여 전문지식을 쌓았고, 사료기업으로 이직하여 축산물 사료에 대한 정보도 습득했다. 마치 축산 전문가, 혹은 농장의 대표가 되어가는 과정을 걸었던 것일까. 여러 일을 배웠지만, 공교롭게도 모든 일이 축산이라는 큰 돌레 안에 있었다.

13:00 온도·환기·청결이면 양돈 사업은 끝!

<늘푸른농장>의 정심은 분뇨처리로 바쁘다. 안 대표는 직접 분뇨처리장을 둘러보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원치시설도 살펴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양돈 사업은 딱 3가지만 하면 확실합니다. 온도! 환기! 청결!” 사실 <늘푸른농장>이 있기 전 이곳은 주인의 만원이 끊이지 않는 돼지 농장이었다. 안 대표는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적합한 분뇨처리장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도와 환기를 제어하는 자동시설을 개발했다.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자동원치시스템과 특화된 분뇨처리장으로 시끄럽던 돼지농장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마을의 민원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불쾌한 냄새와 시끄러운 돼지들의 소리가 들렸던 이곳이 이제는 금산을 대표하는 유명농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17:30 도움받던 청년에서 도움 주는 사업가로!

이제 갓 나온 새끼 돼지의 땃줄을 자르고, 어금니를 다듬어 어미 돼지에게 건네준다. 안 대표는 간호 분만을 해야 새끼 돼지와 어미 돼지의 건강이 높아지고, 성장률도 좋아진다고 당부했다. 1997년 4월, 처음 양돈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농장의 돼지 등급을 올리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주변의 도움이 있어 지금의 <늘푸른농장>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안원희 축산가. 돼지 전문가들을 직접 방문해 지식과 경험을 얻은 한 젊은 축산가는 이제 양돈모임연구회와 협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 후배들에게 배움을 그대로 전수해 주고 있다. 온도·환기·청결의 조건을 갖춘 농장, 전문적인 약품과 사료 지식을 배운 축산가의 열정이 꽃피운 곳. 그곳에는 4,500마리의 돼지가 건강함 속에 자라고 있다. ☺